

시민과 함께 문화공간 지향…‘미술언어’ 확장

광주시립미술관 새해 사업계획 발표

청년·중견·원로 아우르는 기획·소장품 상설전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강요배·몽골 교류전 등
하정웅미술관·청년예술센터 전시·프로 ‘다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의)은 2026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술관’을 비전으로, 전시·연구·교육·교류를 아우르는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광주가 아닌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체성을 동시에 미술 언어로 확장하며, 지역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선진국의 공립미술관이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문화 플랫폼으로 가능하듯, 광주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연구·교육·교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공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지역 미술사 연구·소장품 기반 전시 기획, 미술인 창작 지원·시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2026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이는 미술관 운영의 조력자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먼저 지역 미술사 조명과 동시대 미술 흐름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시가 연중 진행된다. 청년·중견·원로 작가를 아우르는 기획전과 소장품 상설전,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시, 그리고 국제 교류 전시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한희원과 젊은 영혼들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릴 2025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전은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5·6전시실에서 진행되고, 김재형·정승주 작가를 중심으로 ‘찬미와 탐미’라는 주제로 열릴 원로작고작가전은 2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1·2전시실에서 선보인다.

또 ‘예행·남도 미술의 맥’이라는 주제로 3월 17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열릴 소장품 상설전은 제3·4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사색적이고 순수한 회화 세계를 추구했던 전남 진도 출신 채성필 초대 전으로 꾸며질 현대미술기획전은 4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린다.

이어 ‘강요배: 시간이 되는 풍경’이라는 명칭으로 열릴 민주인권평화전은 5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서로에게 비준 빛’이라는 주제로 6월 몽골국립미술관에서 열릴 국제 교류 전시인 문화도시광주전은 광주·전남 미디어 아티스트와 몽골 현대미술 작가들의 협업으로 꾸며진다.

하반기에는 2026 국제미술상 수상작가전 ‘장진원’, 광주비엔날레기념전 ‘국제하이퍼리얼리즘’, 국내외문화기관교류전 등이 이어지며, 국내외 우수 작가와 기관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다.

하정웅미술관에서는 지역미술단체협업전이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에麦회’전으로 꾸며지고, 청년작가들의 실험적 시도와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조명할 제26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26’과 광주청년작가초대전인 이조홍전이 펼쳐진다.

이율리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회, 하정웅컬렉션 관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시민과 연구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연구·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립미술관은 2026년 레지던시 운영을 국제레지던시·청년예술센터·국내외 교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중의공원 내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를 거점으로 광주 활동 작가를 선발·입주시키고 창작지원금과 함께 오픈스튜디오, 현장 비평, 세미나, 포럼 등을 연다.

독일과 대만, 캐나다 등 해외 협력 기관과의 교류를 지속하며, 작가 파견 및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1월 현재 캐나다 작가 2명이 국제레지던시에 입주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남구 사직동 청년예술센터에서는 지역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창작공간 지원과 전시, 워크숍, 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분기별 집단회와 공동 모형 레지던시를 통해 과정 중심의 창작 지원이 안착되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운영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예술 교류 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내외 파트너십 발굴과 이동형 창작공간 기반의 실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네스트 문화예술교류’ 모델 구축을 목표로, 지역 내외 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하는 GMA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민·관·위킹그룹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융복합 콘텐츠 경쟁력도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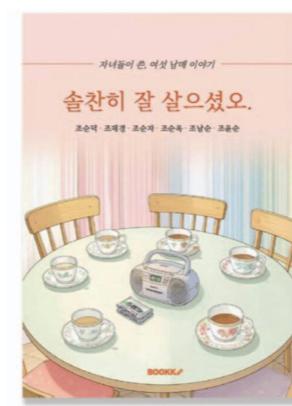
윤의 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은 창작과 연구, 비평과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레지던시 운영을 통해 광주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광주시립미술관은 시민과 예술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광주 미술의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책임지며 끝까지 살아낸 삶에 건네는 인사”

근현대사 살아온 평범한 여섯 남매의 이야기 온 가족이 펴낸 자서전 ‘솔찬히 잘 살으셨오’



바람 잘 날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 바람들을 잘 극복하고 성장한 자녀들이 그동안의 삶의 전반을 다른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훌륭할 것도, 잘할 것도 없는 평범한 여섯 남매의 일생을 다른 자서전 ‘솔찬히 잘 살으셨오’가 그것으로 자기출판 플랫폼으로 유명한 BOOKK(부크크)에서 최근 나왔다.

‘자녀들이 쓴, 여섯남매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솔찬히 잘 살으셨오’는 근현대사를 살아온 평범한 여섯 남매의 이야기를 자녀들과의 인터뷰로 풀어낸 구술 체로 형식의 자서전이다. 저자로는 조순덕 조재경 조순자 조순옥 조남순 조윤순씨 등 육남매다. 원래 칠남매인데 사정이 있어 큰 오빠가 빠졌다고 한다.

이처럼 온 가족이 출동해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이번에는 이중 조윤순씨가 암 발병 후 언니들을 망라해 자매들끼리 자주 모여 지내다 이런 소중한 가족이야기를 한번 남겨보자고 해 의기투합했다. 더

죽이 조윤순씨는 광주에 거주하다 함평

식이 택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 덕에 출판이나 저술 경험이 전혀 없던 여섯 남매는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을 밟힐 수 있었고, 인터뷰어로 참여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터뷰어로 자서전 저술에 참여한 노진재(38)씨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솔찬히 잘 살으신’ 증거”라고 말하면서. “가족 간의 이야기를 종으로, 횡으로 이어 한 필의 베를 짜듯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자서전”이라고 평했다.

또 인터뷰어인 조은옥(44)씨는 “‘솔찬히 잘 살으셨오’는 특별한 성공담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견디고 책임지며 끝까지 살아낸 삶에 건네는 인사”라며.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든 시대에 삶이 책이 되고, 책이 다시 가족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 가족이 참여해 펴낸 ‘솔찬히 잘 살으셨오’의 출판기념 복본서도 마련돼 지난 17일 금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위해 세 세대에 걸친 여섯 남매의 가족 총 4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모처럼 가족 학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웃음 제조기’ 이보다 더 웃긴 연극은 없다

‘늘근 도둑이야기’ 내달 20~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난 두 늙은 도둑.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한탕을 꿈꾸며 어느 부자집에 숨어든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곳은 ‘그분’의 미술관. 세계적인 명작들로 소장돼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금고만들어온다.

경비견이 잡들기만을 기다리며 티격태격하던 사이, 도둑들은 결국 현장에서 불잡혀 조사실로 끌려간다.

수사관은 사상적 배후와 있지도 않은 배후세력을 짐작하게 캐물고, 영문도 모른 채 물린 두 도둑은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으며 상황은 점점 더 우스꽝

스럽게 흘러간다.

코미디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가 오는 2월 20일 오후 7시 21일 오후 2·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관객들을 기다린다.

작품은 1989년 초연 이후 35년 넘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다.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난 두 나이든 도둑이 대통령의 비자금 흡치기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황당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단순한 슬랩스틱 코미디를 넘어 시대를 훠뚫는 풍자와 해학이 담겨있다.

이 작품의 큰 특징은 배우들의 압도적인 입담과 에드리브다. 정해진 대본이 있지만 그날의 분위기

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이슈를 즉흥적으로 국에 녹여 볼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허풍과 거짓말의 달인으로, 말로는 당해낼 수 없는 멀 늘근 도둑 역은 배우 박철민. 도둑질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더 늘근 도둑 역은 배우 최재섭. 두 도둑과 티격태격 입씨름을 벌이면서 은근히 휘둘리는 수사관은 배우 이호연이 각각 맡는다.

예매는 예스24에서 하면 된다. 입장료는 S석 3만 3000원·R석 5만 5000원·VIP석 6만 6000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베트남 혁신의 길 ‘도이마이’ 추적

외세의 침략, 식민 지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 버린 땅. 가까이는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멀개는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가 침략한 역사를 품고 있는 나라.

반만년 내내 자신들의 뜻을 품고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 등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이 달은 ‘베트남’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베트남의 정치와 경제의 결합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이나 서구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베트남의 ‘도이마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이마이는 애초 아래로부터의 인민의 요구, 현실 문제에 대한 개혁적인 당 지도부의 반응과 수용, 그리고 소통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을 의미한다. 이

길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다.

아문명연구원 총서 ‘…도이마이의 길’ 출간

독자적 노선 구축 한국의 현재 상황 떠올려 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조망하며 대체 ‘베트남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간다.

특히 이 책은 베트남의 정치와 경제의 결합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이나 서구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베트남의 ‘도이마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이마이는 애초 아래로부터의 인민의 요구, 현실 문제에 대한 개혁적인 당 지도부의 반응과 수용, 그리고 소통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을 의미한다. 이

길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다.

수많은 현실 상황을 각계각층에서 반

교원)씨가 공동 저서 ‘베트남 도이마이의 길’(심미안)을 아시아문명연구원 총서 2번 째 권으로 펴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반만년 내내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는 역사,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국가. 냉전의 각축장인 아시아에서 남북으로 나뉘어 비극을 경험한 국

가라는 점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무척 유사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마르크스 및 레닌과 같은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과 염연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행복한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떠올렸다고 한다. 이 길잡이서는 도이마이의

길을 추적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황선시내 깃대